

글로벌 AI기업 줄줄이 IPO…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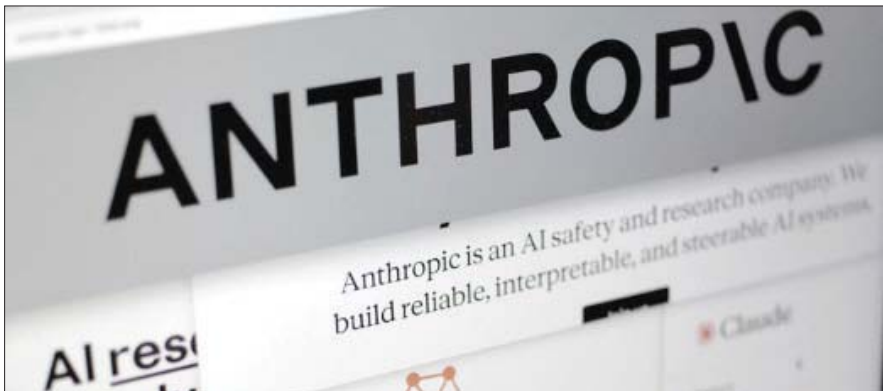
엔트로픽·오픈 AI 등 상장 추진
초기투자 국내 기업들 대박 조정
공모 흥행에 따라 AI 거품론 판가름

엔트로픽, 오픈AI, 딥시크, 문샷AI… 세계에서 가장 몸값 비싼 비상장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을 추진하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다시 한번 G2(미국·중국)으로 쏠리고 있다. 이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첨단 기술을 앞세운 ‘꿈 주식’으로, 지금까지 스페이스X·테슬라·엔비디아·팰런티어 등 기술 선도 기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온 서학개미들의 투자 붐이 재차 일어날지 주목된다.

엔트로픽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S-1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며 티커명은 ‘ANT’를 사용할 계획이다. 공모 주식 수와 희망 공모가 범위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상장 일정과 공모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엔트로픽의 기업가치가 최대 2조달러(약 27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지금까지 최대 규모 기업공개(IPO)는 지난 6월 상장한 스페이스X가 세운 기록(1조 7700억달러)이었다. 엔트로픽이 상장하면 기존 기록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IPO 사례가 된다.

◆‘꿈 주식’ 줄줄이 상장대가… 세계 투자금 블랙홀 되나

엔트로픽은 다음 달에 티커명 ‘ANT’로 나스닥에 A형(클래스 A) 보통주를 상장할 계획이다. 엔트로픽 창업자들은 증권신고서에 첨부한 서한을 통해 “우리는 AI가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기술 중 하나라고



인공지능(AI) 기업 엔트로픽의 기업공개(IPO) 절차가 오는 11월 초 미국 중간선거 직전에야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2월26일 미국 뉴욕의 컴퓨터 화면에 엔트로픽의 홈페이지와 회사 로고가 표시된 모습

믿는다”고 밝히고 회사 설립 목적으로 “인류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첨단 AI의 책임 있는 개발과 유지”라고 명시했다.

이번 상장은 급성장하는 생성형 AI 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실제 수요와 평가를 가능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IPO가 AI 투자 붐에 대한 우려가 불거진 상황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증시 데뷔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르네상스캐피탈의맷 케네디수석전략가는 몇 달 전만 해도 투자자들은 AI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의문을 품지 않았지만, “엔트로픽이 올해 여름과 비교해 훨씬 어려워진 IPO 시장에 진출하려 한다”고 진단했다.

엔트로픽이 상장을 본격화하면서 오픈AI의 행보도 주목된다. 한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오픈AI가 AI 안정성 논란과 기업가치 손실 등에 대한 우려로 IPO를 내년으로 연기했는데 엔트로픽의 상장으로 상황이 달라져다”고 지적했다. 오픈AI는 최대 1조달러에 달하는 기업가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올해 상장하려면 기업가치 기대치를 낮추거나, 1조달러 수준의 평가를 원한다면 2027년까지 기다리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오픈AI는 연말 300억달러(약 40조 7000억원)를 조달하는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기업가치는 1조 4000억 달러다.

중국 AI 업체들도 뒤를 쫓고 있다. 중국의 대표 생성형 AI 업체 딥시크는 상하이 증권거래소의 기술주 중심 시장인 커황반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딥시크는 상장을 위해 중신증권을 자문사로 선정했으며 빠르면 올해 안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상장은 2027년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딥시크는 상장을 앞두고 최신 투자라운드에서 최소 800억 위안(약 16조 원)을 확보했다. 딥시크 기업가치는 5000억 위안(약 100조 원)으로 평가된다.

‘키미’로 유명한 문샷AI는 홍콩 증시를 노리고 있다. 문샷AI의 기업가치는 잇단

투자 유치를 거치며 꾸준히 올랐다. 올해 여름 직전 라운드에서는 315억 달러(약 42조 원)로 평가됐다. 향후 매출을 가능하게 하는 지표인 연간반복매출(ARR)은 현재 10억 달러에서 연말까지 2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SKT대박, IPO 흥행시 원화·코스피 영향

엔트로픽이 상장 준비에 들어가면서, 이 회사에 수억 달러대 초기 투자를 해놓은 국내 기업은 벌써 대박 조정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023년 엔트로픽에 1억 달러를 초기 투자한 데 이어 이후 추가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증권은 SK텔레콤이 보유한 엔트로픽의 가치가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엔트로픽 평가 차익은 최소 3조원에서 최대 7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런 기대감 속에 SK텔레콤 주가는 이날 1.94% 상승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현지시간)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엔트로픽이 2조달러의 기업가치를 인정받는다면 컴퓨팅과 위를 제공하는 기술기업들을 비롯한 장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에서는 아마존과 구글의 투자이익이 주목받고 있다. 시장은 아마존이 보유한 전환사채(CB)가 모두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엔트로픽 지분 약 20%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가치 2조달러를 가정하면 지분 평가액은 약 4000억 달러(약 540조 원)에 이른다. 구글 역시 엔트로픽의 주요 투자자다. 현재 구글은 약 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투자에 따라 지분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증권가에서는 엔트로픽의 상장 행보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 AI 기업의 수익성과 재무 구조가 IPO 시장에서 처음으로 검증받는 사례여서다. 엔트로픽 상장 흥행 여부에 따라 AI 거품론이 재점화하거나 빅테크 중심의 대형 밸리가 지속될 수 있다. 오픈AI, 메타 등 경쟁사 사이에서 AI 모델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시장에선 엔트로픽이 상장이 국내 금융 시장에 큰 변수가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서학개미들이 해당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해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올 6월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도 미국 달러 환전 수요가 단기간에 늘어나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선 바 있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조금은 먼 이야기지만 엔트로픽 IPO가 흥행하면 ‘AI 회사가 돈을 잘 버니 그 회사 때문에 돈 버는 회사대신 AI 회사를 직접 사자’는 심리가 커질 것”이라며 “흥행이 부진하면 AI의 후방 산업인 메모리 등과 관련된 종목에 부정적이라 단기적인 수급은 어떻게든 엔트로픽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한편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들은 IPO에 직접 참여해 공모주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 6월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의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해 고객 자금을 모으다가 ‘0주’를 받으며 청약이 불발돼 논란이 됐던 점도 금융회사들이 소극적으로 나서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오른만큼 못 벌었다

비트코인, 달러 기준 저점대비 38.5% ↑
원화 강세 지속… 수익 40% 이상 상쇄

#. 직장인 도모(31·여)씨는 지난해 1분기 빗썸에서 비트코인과 리플을 같은 비중으로, 이더리움을 조금 섞어 100만원어치 넘게 샀다. 도씨는 “막타 타고 샀다”며 웃었다. 현재 수익률은 비트코인 -20%, 이더리움 -42%, 리플 -56%로, 전체로는 38% 손실이다. 도씨는 “가격이 올랐다는 소식은 익히 들었는데 수익률은 그대로라서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달러 가격은 올랐지만 환율이 내리면서 원화로 는 그만큼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했다. 그래도 그는 “현금 대비 향후 가치가 더 있을 것 같다”며 계속 보유할 생각이다.

원화값이 급등하면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얼굴에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27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바이낸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저점 부근이던 7월 1일부터 지난 23일까지 달러 기준 38.5% 올랐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8934만 8000원에서 1억 887만 9000원으로 21.9% 오르는 데 그쳤다. 원·달러 환율(매매기준율)이 1548.4원에서 1324.6원으로 14.5% 떨어지면서 수익률을 17%포인트 가까이 끌어내린 것이다. 바닥을 정

확히 짚고도 달러 기준 수익의 40% 넘게를 환율로 잃은 셈이다.

그나마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이 줄어든 수익 일부를 메웠다. 7월 초 업비트 비트코인은 해외보다 1.6% 싸게 거래되는 ‘역(逆)프리미엄’ 상태였지만, 23일에는 해외보다 1.2% 비싸게 거래됐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평가받은 셈이다. 해외 가격에 환율만 곱해 환산하면 원화 수익률은 18.5%로, 업비트 실제 수익률(21.9%)보다 3.4%포인트 낮다.

연초 이후로 기간을 늘려보면 투자자 손실은 두 배로 불어났다. 비트코인은 연초 대비 달러 기준 7.4% 하락했다. 그러

나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 원화 가격은 1억 2800만원에서 1억 887만 9000원으로 14.9% 떨어졌다. 손실이 커지자 투자자들은 시장을 외면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국내 가상자산 평가총액은 58조 9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3% 줄었고, 거래소 원화예치금도 35% 감소했다.

이환욱 유안타증권 연구위원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순유출과 거래소 유입, 위험 회피 심리를 감안하면 조정 국면은 더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저평가 심화된 만큼 현재 가격대는 중기적으로 저가 매집에 유리한 구간”이라고 분석했다.

/김아영 기자 aykim@



(왼쪽부터) 이수민 두나무 임팩트비즈니스실장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윤선주 두나무 최고브랜딩임팩트책임자(CBIO)가 지난 26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21주년 기념식’ 대통령표창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두나무

두나무, 대통령표창 수상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국가 재난 구호와 인도주의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두나무는 지난 26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2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 표창을 받았다.

그동안 두나무는 재난 발생 시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구호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디지털자산 기업의 특성을 살려 비트코인을 활용한 기부도 진행한 바 있다.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 당시 업비트 이용자와 함께 총 14비트코인을 구호성금으로 전달했으며, 2025년 국내 수해 복구에 비트코인을 기부하는 등 디지털 자산이 새로운 사회공헌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신하은 기자

금감원, 퇴직연금 ETF 위험등급 안내 강화

내년부터 투자한도·위험등급 함께 표시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상장지수펀드(ETF)의 위험등급 안내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퇴직연금 매매 화면과 상품검색 화면에 투자한도와 위험등급을 함께 표시하도록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제안서와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에도 위험등급을 병기한다. 일부 사업자는 전산개발 일정

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한다.

올해 상반기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558조 3000억원으로, 원리금보장형이 360조 3000억원, 실적배당형이 198조 원이다. 실적배당형 가운데 ETF 투자 규모는 99조 8000억원으로 전체의 50.4%를 차지했다. 2023년 말 9조 원이었던 ETF 투자 규모는 2년 반 만에 10배 이상으로 늘었다.

금감원이 퇴직연금사업자의 ETF 위험 안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사업자의

모바일·인터넷 매매화면에서 상품 위험등급 없이 투자한도만 제공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투자한도는 같아도 위험등급은 달라질 수 있다. 펀드 설정 후 3년이 지나면 실제 수익률 변동 등을 반영해 위험등급이 재분류되기 때문이다. 실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한 국고채 30년 ETF는 위험등급이 2022년 8월 5등급인 ‘낮은 위험’에서 올해 8월 3등급인 ‘다소 높은 위험’으로 변경됐다.

이에 금감원은 가입자가 상품을 매수할 때 투자한도와 위험등급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을 개선한다. 상품의 이익·손실 가능성 등을 안내하는 상품제안서에도 위험등급 정보를 추가한다.

상품을 보유하는 동안에도 위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양식을 바꾼다.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보유 상품 목록에 위험등급을 표시해 수익과 위험을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입자들에게 투자한도만으로 상품의 안전성을 판단하지 말고, 상품제안서와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를 통해 위험등급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